

◀하나님! 나의 하나님▶ **최태욱 선수의 십일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과 프로구단을 놓고 어디로 가야할 지 고민을 했을 때 대학에도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형편이 마음에 걸려 안양LG에 고졸 선수로는 1억 8천 만원이라는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당당히 들어갔다. 생전 처음보는 커다란 액수의 돈이었다. 아버지께 통장을 드리자 아버지께서는 감격하셨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통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으며, "태욱아, 아버지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집안 형편 생각해서 프로 구단에 들어간 것도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날 밤, 자기 전에 곰곰히 생각하다가 십일조를 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적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아버지의 교회에 대한 불신은 대단했다. 이런 형편에 내가 십일조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 동안 눈감아 주셨던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반대하실 지도 모른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천 만원이라는 큰 돈을 찾았다. 주일 예배시간, 내 앞에 현금함이 오자 마자 두 손을 모아 2천만원이 든 하얀 봉투를 넣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 평소 즐겨 부르던 찬양을 흥얼거리며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통장을 한손에 들고 계셨는데 나를 보자 그 통장을 내 앞으로 던지시며 버럭 소리를 치셨다.

"그 돈, 교회에 갖다 바쳤지? 당장, 그 돈 찾아와라."

하며 '내게 고향을 치셨다. 평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나였지만, 그때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제가 방황했을 때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씀드렸다.

"제가 왜 현금을 했는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셨는지,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만 끄덕이시는 게 아닌가?

그 후 나는 내 당당한 발언(?)처럼 더욱 축구에 매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국가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십일조 사건 이후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꼬박 꼬박 십일조를 챙겨주시기 까지 하신다.

◀눈물나는 밤엔 우먹의 찻별을▶ **실제 있는 교통표시판**

서울에서 양수대교를 지나면 만나게 되는 커다란 표지판에 이렇게.....

"차량추락시 수질오염이 우려되오니 서행운전바람"

차라리 이런 문구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차량추락시 옷이 젖사오니 서행운전바람"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4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2월 8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사람이 재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경일을 살펴보면 그 나라에서 존경받았던 사람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국경일을 삼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흑인 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의 날과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여 쉬고, 각 주별로 자기 주 출신 위인들의 탄생일에 쉽니다. 일본은 왕의 생일에 쉬고, 유럽에서는 주로 성인 성녀들을 기념하여 쉬는 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인들의 생일에 쉬는 날이 2일 있는데, 특이하게도 두 분 다 다른나라 사람들입니다(성탄절 석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은 전 세계가 모두 쉬는 특별한 날이어서 이해가 되지만, 석가모니 탄생일에 쉬는 나라는 불교가 국교인 방글라데시와 태국 밖에 없습니다. 그의 고향인 인도에서조차 공휴일이 아닙니다. 불교국가도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탄절도 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석탄절도 쉬어야 한다고 우겨서 그리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존경할만한 스승이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인물을 알아보고 존경할 줄을 아는 안목이 없어서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살아가려 하면,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을 아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그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유혹하여 결국 그를 타락시키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최용우-)

'사람'을 밖에서만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계중에는 타교회 교인에겐 비굴할정도로 친절한데 내 교회 교우들에겐 예의없이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불친절하면서 다른 아내에게 친절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일종의 간음의 마음이듯이 그것도 도덕적 간음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며 목표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남편감을 신중히 택하거라  
잘 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세 시간 동안 행복이 보장되지만  
가슴이 따듯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내감을 신중히 택하거라  
예쁜 여자를 만나면 삼개월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삼십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삼대가 행복해진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다 같 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 도 자  
Proclaim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 송 29장 다 같 이  
Hymn

\*성 시 교 독 37(이사야 40)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찬 송 432장 다 같 이  
Hymn

기 도 박 일 영 집 사  
Prayer

성 경 봉 독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  
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은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 가 대 찬 양 나 무 심 자 가 성 가 대  
Choir

설 교 '작은 거인 삭개오' 김 성 국 목 사  
Sermon

찬 송 '331장' 다 같 이  
Hymn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헌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이 믿을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Response Song (1절:박재양, 최현철 집사가장, 2절:다같이)

축 도 김 성 국 목 사  
Benediction

## ◆1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1	김영길	이금선	박병민, 이기중	원성호, 김재연	송영철, 양경배
8	박일영	이기중	사카시다, 최기향	박재양, 최현철	원성호, 윤형권
15	이재영	이재영	박상옥, 이금선	윤형권, 신영화	이광희, 이근평
22	최재학	이지영	양경배, 김동숙	이광희, 이규임	이제윤, 이재영
29	김순자	정희자	박정자, 윤한나	이근평, 임숙경	임성광, 장현중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드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7시



☆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Advent)의 둘째주일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설레임으로 행복해지는 것으로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 1. 교우소식

\*<이사> 사카시다 키쿠오, 최기향 집사 ☎ 418-4020 ☐ 89 B Alton Ave. Northcote  
조용건, 김미애 집사. ☎ 838-8364 ☐ 39 Harvest Dr. Henderson

\*<귀국> 정이지 집사. 한국방문후 어제(토) 오셨습니다.

\*<등투> 신미숙, 경민, 김이삭(조카)(②선교회.2구역) ☎ 522-0027 ☐ 77A Bell Rd. Remuera

2. 제1남여선교회 정기총회 및 아유회. 오늘 예배후 One Tree Hill

3. 제2남여선교회 총회. 예배 후 Hall

4.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9일(월) 오후 1시. 교회

\*여성교우들의 기도모임입니다. 어머니들의 중보기도는 교우들의 힘과 의지가 됩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 세례. 유아세례 신청: 성탄절에 베풀게 될 세례와 유아세례자는 신청용지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3세이하 <세례> 15세 이상으로 교회출석 6개월 이상

6.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분을 기다립니다.(테너, 베이스) <문의> 성가대장: 박일영 집사

7. 학생부 크리스마스 축하행사 연습

주중에 교육관에서 연습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연습시작과 끝나는 시간에 자녀들을 차량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8.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 "Christmas with the Family"

<일시> 12월 24일 저녁 6시-늦은밤까지 <장소> Pump House (Takapuna)

\*성탄의 밤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는 이웃(불신자), 평소 신세 진 이웃을 한가정 초대하여 기쁜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함께 지내는 아름다운 성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작한 시인들▶ 행 복

- 유치환 -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성탄 카드를 보내고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카드를 받고 난 후 답신처럼 보낼 때는 뭘지 모를 의무감과 미안함이 있지만 내가 먼저 보낼 때는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받는 사랑보다 먼저 주는 사랑으로 행복한 금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